

# 광주시 '시사관학교'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인공지능)

설립 시기 등 계획 변동...공모 탈락하면 사업 차질 불가피  
프랑스 '에콜 42' 벤치마킹...나이·학력 구분없이 교육생 선발

광주시가 인공지능(AI)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인공지능 사관학교' 설립을 정부 공모사업 방식으로 추진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인력 양성 사업 공모에 맞춰 사관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

시는 과기부가 조만간 공고를 내면 시설, 교육과정 등 계획안을 담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개교 시기는 애초 3월로 예정했으나 공모 참여에 따라 다소 늦춰졌다. 시는 공모 지원·심사, 교육생 모집 기간을 거쳐 오는 7월이면 개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밀린다면 국비 확보 등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모를 준비하면서 교육과정, 운영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구상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소프트웨어 교육 기관인 '멋쟁이 사자처럼', 광주 과학기술진흥원과 함께 인공지능 사관학교 업무협약(MOU)을 했다. 시는 행정·재정적 지원, 멋

쟁이 사자처럼은 실무, 과학기술진흥원은 교육과 숙식 장소 제공 등을 맡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관학교는 나이, 학력, 경력, 국적, 전공 등 구분 없이 교육생을 선발해 기초형 과정으로 AI 분야에 집중해 기본·심화 과정, 해외 연수 등 교육을 한다. 프랑스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인 '에콜 42'(Ecole 42)를 벤치마킹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년 과정 '기술혁신 아카데미'를 참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부지서 문화재 발견...공사 차질 빛나

고대 가옥·집터 등 나와...건설본부 "공사 차질 없을 것"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차량기지 공사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 차질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서구 유덕동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부지에서 고대 유적으로 추정되는 유구(遺構·건물의 자취)가 다수 발견됐다.  
3월 착공에 앞서 부지에 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문화재청과 지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옥, 집터 등이 발견됐다. 부지는 고대 마한문화권에 속한 유물 산포지로 문화재 발굴 가능성이 제기된 곳이다. 본부는 문화재청과 정밀 발굴 조사 여부를 협의 중이다. 시는 3월까지 발굴 조사를 하고 이후 부지에 그대로 보존할

지, 다른 곳으로 옮겨서 기록으로 보존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부지 보존이 결정되면 차량 기지 이전은 불가피하다.  
현재 진행 중인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에서 문화재 지표 조사를 했지만, 차량기지 외에는 문화재가 발견되지 않았다.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차량기지 부지는 당초 문화재 발견 가능성이 큰 곳이었다"며 "인근 택지개발 당시 발견된 문화재와 동일한 것일 가능성이 커 현재까지는 차량기지 변경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3단계로 추진되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단계(2023년 개통 예정) 6공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도시철도 2호선 유촌동 차량기지 문화재시굴 현장.

## 모·부성권 강화 취업규칙 컨설팅 무료 운영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중소기업 대상 1대1 맞춤 지원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기업 만들기"를 위한 모·부성권 강화 취업규칙 컨설팅을 무료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컨설팅 대상은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이하 중소기업 우선지원)이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 등록된 가족친화 공인노무사가 방문해 ▲노무 사항 진단 및 분석 ▲취업규칙 중심으로 모·부성권 인사자료 개정 ▲제도 도입 및 사내 복지제도 설계 ▲컨설팅 결과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등을 한다.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이메일(9schoc1@korea.kr) 또는 팩스(062-613-7969)로 신청 가능하다.  
이번 컨설팅은 선착순 10개 업체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부(062-613-79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제순자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모·부성권 보장 강화를 위한 취업규칙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주와 직장맘·대디 등 모두가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시정 시민 참여 확대 '광주혁신 참여단' 500명 공모

행정·복지, 안전·환경 등 5개  
3월까지 신청 접수

광주시는 "시장혁신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광주 혁신 참여단' 500여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참여단은 정부와 광주시의 혁신 사업을 공유하고 혁신 과제나 의견을 제안한다.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 분야는 행정·복지, 안전·환경, 교통·건설, 경제·산업, 문화·관광 등 5개다.

접수기간은 3월까지며,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의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서를 다운받고 이메일(ny\_yang31@korea.kr)이나 팩스(062-613-6269)로 제출하면 된다.  
이정식 광주시 혁신정책관은 "시장 혁신에 시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시민과 혁신 사업을 공유하고 과제를 제안받으려 참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며 "광주 혁신정책 전반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대표도서관 설계 공모 세르비아 건축가 작품 당선

브라니슬라프 레디 작품 선정

광주시가 혐오 시설이었던 상무 소각장 부지에 건립할 도서관 국제 설계공모에서 세르비아 건축가 브라니슬라프 레디의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당선작은 지표면 아래 공간과 소각장을 연결하는 브릿지를 다양한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제시했다. 특히 상부 브릿지 내부 공간은 도서관의 새로운 전경을 만들어낼 것으로 평가됐다.  
(조감도)  
시는 기존 시설물과 연계한 통합 이미지를 창출하고 주변 환경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혐오 시설을 교육·문화시설로 탈바꿈시킨다는 취지에 들어맞는 우수한 건축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당선작에는 용역비 17억3000만원 상당의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하는 우선협상권을 준다.  
2등으로는 이종철(한국), 3등에는 박성기(미국)와 쟈우 카오(중국)의 작품

이 각각 선정됐다. 당선작 등 13건은 17일부터 21일까지 시청 1층 시민숲에 전시된다. 민현식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토마스 보니에르 세계 건축가연맹 회장 등 심사위원 7명은 10일부터 공모에 출품

한 134개 작품을 심사했다.  
시는 연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해 2022년 준공과 함께 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담양·강진 가공식품, 서울시 학교급식 공급

Non-GMO 공급업체 공모 선정  
130개교 고추장·된장 등 납품

서울시의 2020년 Non-GMO(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식재료) 가공식품 공급업체 공모에 담양군과 강진군이 최종 선정됐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Non-GMO 가공식품 공급업체 공모사업은 GMO식품의 위해성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급식 가공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친환경 급식의 질을 높이는 학교급식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담양군(담양농협)과 강진군(강진농협)은 오는 3월 학교 개학과 동시에 서울시 19개 자치구 130개교를 대상으로 국간장, 고추장, 된장 등 26개 품목 가운데 해당 지자체 생산 가공식품 위

주로 납품에 들어간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전국 3개 업체 가운데 2곳이 전남도 소재 업체로, 도내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앞으로 확대 예정인 서울시 Non-GMO 학교급식 시장 선점을 위해 많은 사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 생산업체, 유통업체 등과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도내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쌀 등이 학교급식에 납품 확대 될 수 있도록 공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의 2019년 Non-GMO 가공식품 공급업체 추진사업에서도 전국 유일하게 담양군(담양농협)이 선정돼 서울시 13개 자치구 80개교에 22개 품목 21억원을 납품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 1522-9341